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이현정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Exploring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Acceptance of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Hyun-Jung Lee

Division of Social Welfare, Baekseok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을 위해 국내 학술데이터베이스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 검색을 이용하여 현재 시점까지 게재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총 36개의 논문이 선정되었고 내용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발표 연도, 학문 분야, 연구 주제,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 관련 연구가 처음 수행된 이후로 해당 주제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문 분야별로는 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주제의 비중이 높았으며, 양적 연구 방법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연구에서 연구 주제, 학문 분야 및 방법론에 있어 범위를 넓히기 위한 학문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초등학생, 아동, 내용분석, 연구 동향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suggest research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by exploring trends of existing academic literature on multicultural acceptanc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arched for domestic articles in academic data base using key words related to the subject of this study. Finally 36 articles were selected and using content analysis they were analyzed according to year of publication, field of study, research themes, and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steady academic efforts have been made related to this topic since the first study in this field appeared in 2010 and the most prolific field of study was pedagogy.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theme of analyzing factors affecting multicultural acceptance of children was studied the most and quantitative methods were dominant.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ed a need to put more research endeavor to extend the scope of research themes, study fields, and research designs in this field and they contributed to providing basi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Multicultural acceptance, Multicultu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ildren, Content analysis, Research Trends

*This paper wa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 2018 Baekseok university research expenses.

*Corresponding Author : Hyun-Jung Lee (hjlee2003@bu.ac.kr)

Received July 26, 2018

Revised August 30, 2018

Accepted September 20, 2018

Published September 28,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는 해외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170만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3% 이상을 차지하며 2020년에는 2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이러한 인구 변화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증가로 이어져 2008년 58,007명이었던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2016년 201,333명으로 나타나[1] 교육 현장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구성원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는 2006년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필두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비다문화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 모두를 위한 다문화 교육 강화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학교 환경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친구들에게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88.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3] 다문화 가정 자녀 중 학업 중단자 비율은 2012년 현재 1.9%로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가 학업 중단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된 바 있다[4].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일반 학생들과 비교하여 학교 폭력에 노출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어려움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우울증[5], 자아존중감[6]과 같은 심리적 건강 및 사회적 발달과 정체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7] 자살과 같은 극단적 문제로까지 노출될 위험[8]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은 정책적 노력과 사회·제도적 지원만으로는 한국 사회 안에서의 이들의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일반 비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문화적·인종적 다양성과 차이에 대해 개방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수용성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이며[9] 다문화 사회 도래를 준비하는 교육적 과제로 학문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을 지칭하는 용어는 사회적 거리감, 문화간 감수

성, 문화간 유능성, 다문화 효능성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구체적 정의는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다문화 수용성은 일반적으로 인종적·문화적으로 상이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며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수용하고 다문화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태도로 이해되고 있다[9,10].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연구는 사회 통합이라는 과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육적·발달적 측면에서 학생 자신의 심리·사회적 부적응과도 관련된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김선아[11]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수용성은 부모양육태도와 또래애착과 더불어 초기청소년의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에도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과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은 국외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선행연구들[12,13]은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가 정서적인 내면문제를 완화시키고 상호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 수용성의 부족이 비단 다문화 집단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뿐 아니라 해당 학생의 내현 및 외현 문제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수용성을 교육적 상황에서 중요한 의제로 고려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14].

다문화 수용성 연구에서 초등학생 시기는 매우 중요한데 초등학교 시기는 인지 발달 단계상 구체적 및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15]. 또한 초등학생은 본격적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로 학교생활의 적응 여부가 학생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4]. 이와 같은 발달적 측면을 볼 때 초등학생 시기에 자신과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또래들과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하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문화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아동기에 형성된 타민족, 타인종에 대한 태도나 인식은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며[16],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7세에서 12세까지의 자녀수가 다문화 가정 전체 학령기 자녀 중 약 60%를 차지하는[17] 인구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의 교육적 가소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을 종합적으로 볼 때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연구는 중요

한 주제라고 하겠다.

국내 초등학생 대상의 다문화 수용성 관련 선행 연구들은 주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2, 9, 17-20], 다문화 수용성 척도 개발[21], 다문화 수용성 증진 프로그램[22, 23]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내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연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 시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 대상의 다문화 수용성 연구의 양적 증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18] 현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를 개관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향후 연구에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의미를 갖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다문화 수용성 관련 연구를 개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유사한 연구로 비교적 최근에 국내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2000~2017년까지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24]가 수행되었으나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내 초등학생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한 학문적 및 실천적 함의를 도출해 내는데 있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관련 요인에 관한 개관 연구[25]가 있으나 대상이 중·고등학생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전반에 관한 연구에 함의하는 바를 이끌어 내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의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다문화 수용성 관련 국내 연구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수행된 탐색적 성격을 갖는 연구로 내용 분석 방법에 근거하여 발표 연도, 학문 분야, 연구 주제,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국내 초등학생 대상 다문화 수용성 관련 연구의 현황을 알아보고 보완점을 논의하며 이를 통해 이 분야에서의 후속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성숙된 다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해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실무적 측면에의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분석에 사용된 논문은 국내 대표적 학술 검색엔진에 해당하는 DBpia,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주)에서 운영하는 정보서비스시스템(KISS)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하였다. 현시점까지의 해당 분야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는 연구 목적 상 검색 기간에 대한 별도의 지정 없이 모든 연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 검색 작업이 진행되었다. 국내 발간 학술지 논문 중 ‘다문화 수용(성)’, ‘초등학생’, ‘아동’, ‘다문화’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이를 충족시키는 논문들을 검색하였고 검색된 논문들을 논문 내용 및 맥락에 따라 재검토하여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논문들을 선정하는 확인 작업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 대상으로 총 36편의 학술지 논문이 선정되었으며 모든 통계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2.2 자료 분석 방법

선정된 논문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내용 분석은 주어진 데이터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발견해내며, 더 나아가 향후 실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동향 파악 연구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탐색적 성격을 가진 서술적 연구 방법론이다[26].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내용분석은 우리나라 초등학생 대상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이해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 매우 적절한 방법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분석 범주 도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 분야에서 수행된 기존의 동향 연구들[24, 25]에서 사용되었던 분석 준거들을 참고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또한 분석 범주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다각화(triangulation)의 방안으로써 다문화 관련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전공 학자 1인 및 대학원생 1인과의 확인 작업을 거쳐 구체적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Holsti(1969)가 제안한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발표연도 및 학문 분야 항목에서는 100%, 연구 주제 항목에서는 89%, 연구 방법에서는 93%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발표 연도 : 발표 연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고 선정된 논문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학문 분야 : 선정된 논문을 연구 분야와 수행 분야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연구 주제 : 1차적으로는 논문에 명시되어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필요 시 논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 연구 방법 : 양적 연구, 질적 연구와 혼합 방법론(양적 및 질적 연구 수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발표 연도에 따른 동향 분석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는 2010년에 비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개발한 김미진 연구[21]를 필두로 게재되기 시작하였으며(2편, 6%) 2011년에는 해당 주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2~2014년 14편(39%), 2015~2017 17편(47%)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18년에는 지금까지 3편(8%)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8편의 연구가 게재된 것으로 조사되어 초등학교 다문화 수용성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었다. 연도별 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Trends of research chronology

Year	Total(%)
2010	2(6)
2011	0(0)
2012	4(11)
2013	4(11)
2014	6(17)
2015	6(17)
2016	3(8)
2017	8(22)
2018	3(8)
Total	36(100)

3.2 학문 분야에 따른 동향 분석

선정된 36개의 국내 학술지를 연구 분야에 따른 학술지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6편

(17%), 청소년학연구 3편(8%), 시민교육연구 2편(6%), 다문화교육연구 2편(6%), 교육학연구 2편(6%), 인간발달연구 2편(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편(6%), 그 외 17개 학술지에서 각 1편(45%)으로 나타났다. 수행 분야에 대한 분석은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학이 19편(53%)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서의 해당 연구가 가장 활발함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해당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된 분야는 기타사회과학(6편, 17%)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는 사회복지학 3편(8%), 사회과학일반 3편(8%), 학제 간 연구 2편(6%), 지역개발 1편(3%), 기타인문학 1편(3%), 생활과학 1편(3%)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동향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Analysis of field of study

Field of Study	Total(%)
Pedagogy	19(53)
Social science etc	6(17)
Social welfare studies	3(8)
Social science general	3(8)
Interdisciplinary	2(6)
Humanities etc	1(3)
Life science	1(3)
Regional development	1(3)
Total	36(100)

3.3 연구 주제에 따른 동향 분석

연구 주제 분석은 논문에 입력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며 분류 시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개념으로 정의된 용어들은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구 주제는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관한 것으로 전체 분석 대상 논문 중에서 47%(17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 요인으로 연구된 주제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면, 크게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었다. 외재적 요인으로는 부모 관련 변인(부모 양육 태도,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다문화 경험 및 인식), 또래 변인(또래와의 관계, 친구의 다문화 인식), 학교 관련 변인(교사와의 관계, 학교폭력, 학업 성적, 외국인 교사 배치, 학교 다문화 교육 경험), 환경 관련 변인(다문화 밀집 지역 거주, 이웃과의 관계)이 연구의 주제로 나타났다. 내재적 요인의 경우, 분석 결과 자아정체성, 자아존중감, 비판적 사고, 배려, 공동체 의식, 다문화 이해 및 태도, 다문화

경험, 공감 능력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이 수행된 연구 주제는 특정 변인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서의 제 3 변인의 매개 또는 조절 효과 검증에 관한 것(예: 도시와 농촌 초등학생의 또래 관계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차이: 학교적응과 지역사회 인식의 매개 효과)으로 7편이 수행되었으며 이는 전체 분석 대상 논문의 19%에 해당한다. 매개 변인으로는 공동체 의식, 공감 능력, 학교 적응과 지역사회 인식, 또래 애착이 연구되었으며 조절 변인으로는 다문화 밀집 지역 거주(다문화 접촉)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다루어진 연구 주제로는 다문화 수용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5편(14%), 다문화 수용성과 특정 변인의 관계 검증 3편(8%), 학년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검증 2편(6%), 다문화 수용성의 국가 비교 1편(3%), 다문화 관련 척도 개발 및 평가 1편(3%)으로 나타났다. 연구 주제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Analysis of research themes

Research Themes	Total(%)
Examining factors affecting multicultural acceptance	17(47)
Mediating or moderating effect of certain variables in relationship between a variable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7(19)
Developing and testing effects of programs targeting increasing the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nce	5(14)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some variables	3(8)
Difference of the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ccording to grade	2(6)
National differences in term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1(3)
Developing and testing multicultural measurement	1(3)
Total	36(100)

3.4 연구 방법에 따른 동향 분석

연구 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관련 연구는 양적 연구가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36편의 학술지 중 34편이 양적 연구로 전체의 94%를 차지하였으며 질적 연구는 한 편도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 중 2편(6%)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병행된 연구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혼합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다문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얻고자 활동지 및 소감지 자료 분석이나 인터뷰와 같은 방법이 질적 방법론으로 사

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조상미 외[23]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을 수행하였는데 효과성 검증을 위한 양적 연구 방법의 활용과 더불어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연령 수준에서 인식하고 경험하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영역(다문화 인식,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 공감)에 맞추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Analysis of research methods

Research Methods	Total(%)
Quantitative	34(94)
Qualitative	0(0)
Mixed	2(6)
Total	36(100)

4. 결론

4.1 연구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내 연구 36편을 연구의 연도, 학문 분야, 연구 주제, 연구 방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및 관련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분석 결과 구체적 연도별로 증감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2010년 해당 분야 관련 연구가 처음 수행된 이후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36편의 관련 연구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관찰된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관련 연구의 꾸준한 학문적 축적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학문 분야에 따른 연구 동향 분석 결과 교육학 분야에서 전체 논문의 50% 이상이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 대상자가 초등학생이라는 특성과 다문화 교육 강화라는 정부 정책의 기조에 따른 학계와 교육 실천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 결과 교육학 이외에도 소수이기는 하나 기타사회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해당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해당 연구 분야에서의 긍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연구 주제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가 일부 주제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서론에서 언급한 다문화 수용성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의 연구 결과[24,25]와도 같은 맥락을 보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로 숫자적으로 이는 전체 논문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연구 및 경험의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학계 및 교육계의 상황과 관련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수용성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축적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심 현상인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보다 세분화된 다른 연구 주제들(예: 구체적 특정 변인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분석, 다문화 수용성의 과정에 대한 연구 등)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기초적이고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통합 및 교육적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현실과 맞물려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침을 현장에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연구 주제는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다문화 수용성 관련 연구가 시작된 지 10여 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연구 주제의 다양화를 통해 해당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학문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 주제에 대한 동향 분석 결과 두 번째로 연구 수행 빈도가 높은 주제는 특정 변인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서의 제 3 변인의 매개 또는 조절 효과 검증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기제들에 대한 탐색을 통해 과정 중심적인 결과를 제공하므로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실천 현장에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연구 방법에 따른 동향 분석 결과 양적 연구 방법의 사용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수용성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의 선행 연구

[24,25]에서도 관찰된 경향이다. 본 연구 결과,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소수의 연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양적 연구 방법을 주요 토대로 하고 부수적인 접근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정도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언어 표현의 한계 등 초등학교생이라는 대상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심도 있는 자료 수집에 중점을 두는 질적 연구의 경우 초등학교 연구 대상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질적 연구 적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보다 심층적이고 풍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4.2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활용 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를 개관하는 작업이 미흡한 상황에서 기존 연구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 방향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초등학교생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및 실천 현장에 프로그램 및 정책 관련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의 구체적인 시사점과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생 다문화 수용성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현상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서 논의되었던 다문화 수용성 연구에서의 초등학교 생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주제에 관련한 학문적 작업의 양적 성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초등학교생 다문화 수용성 관련 연구가 교육학 이외에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수행되어 진 것으로 나타난 점은 긍정적이나 상대적으로 소수인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 수용성이 교육 분야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볼 때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학문적 이해는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 수립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난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한 쏠림 현상은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향후 연구 주제가 다양화 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예를 들어,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생태체계적인 관점[27]에서 볼 때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 결과 다양한 환경 중 초등학생을 포함한 학령기 대상자에게 있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발달적 상황에 따라 학교가 중요한 생태학적 영역으로 부각됨에 따라[28] 기존 연구들에서는 교우 및 교사 관계, 다문화 관련 학교 교육, 학교 폭력 등과 같은 학교 환경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정과 더불어 초등학생에게 밀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교 환경 측면에서의 다문화 수용성 관련 변화 요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에 대한 개방과 수용적 태도는 여전히 낮으며[20] 사회적 환경이 개인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24] 학교 환경을 넘어 사회적 가치, 제도 등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환경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시도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얻어진 결과들은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실천에 있어 다차원적인 개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는 아동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미시적 환경에 속하며 부모의 인종집단에 대한 편견 및 태도와 자녀의 다문화 집단에 대한 편견과의 관련성[29-31]이 보고되었음을 고려할 때, 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후속 연구들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24].

연구 주제의 다양화의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 다문화 수용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가 단 5편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다문화 수용성 증진 관련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 영역 중 다문화 인식이나 문화 개방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다문화 공감에 관련 하여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23]나 다문화 교육이 인종 차별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 결과[32]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다문화 수용성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때로

는 부정적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 관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더불어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양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겠고 질적으로도 보다 정교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어떠한 측면들이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장에서 초등학생 대상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어떠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지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 연구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프로그램 종결 직후 사후 조사가 실시되었으므로 프로그램의 장기효과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 설계에 있어 향후에는 추후 연구가 포함된 다양한 평가 설계를 통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넷째,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는 초등학생 대상의 다문화 수용성 관련 연구에는 질적 연구나 혼합 방법론에 비해 양적 연구방법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활용되어 왔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연구에 있어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갖기 위해 연구방법 간의 균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질적 방법을 통해 초등학생에게 있어 다문화 수용성이 갖는 의미, 개인의 경험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변화 등과 같은 주제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진다면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주제에 관해 학문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초등학생의 다문화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질적 연구들을 통해 생성된 연구 결과들은 교육 현장에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또한 질적 연구의 확대와 더불어 초등학교시기에 형성된 다문화 수용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종단적 연구 방법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다문화 수용성의 변화 추이 또는 개인의 다문화 수용성의 변화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주었는지를 추적 조사하는 것이 그러한 예로, 횡단적 연구에 비해 각 개인의 변화 측정이 가능한 장점을 갖는[24] 종단적 연구 결과는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4.3 연구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내용 분석 방법론의 특성 상 연구 현황과 향후 과제를 연구의 주제, 방법, 발표 연도, 및 학문 분야에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외의 가능한 분석 기준에 의해 도출될 수 있는 결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분석 대상을 학술지 논문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다른 형태의 학문적 연구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및 분류들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분류 기준들을 다각도에서 교차시켜 살펴보는 교차 분석을 통해 보다 세분화되고 정교한 분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Justice. (2018). *Korean Immigration Service 2016*. Ministry of Justice. <http://www.kosis.kr>
- [2] H. J. Kim. (2014). A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childre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12), 449-468.
- [3] H. S. Chung, Y. S. Kim, T. M. Yi, K. H. Ma, Y. J. Choi, G. P. Park, C. Y. Tong, J. M. Hwang & E. N. Lee. (2016). *An analysis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5*.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4]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2). *2012 Field Survey of School Violenc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http://www.survey.eduro.go.kr>
- [5] H. W. Byeon & S. H. Cho. (2015).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xperience of depressive symptom in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QUEST Algorithm.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5*(6), 67-76.
- [6] J. J. Jung & S. H. Moon. (2011). A qualitative study on the school experience of multicultural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8), 265-289.
- [7] J. M. Kong. (2009).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justment to school lif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Doctoral thesis. Sookmyeong Women's University, Korea.
- [8] J. Y. Lee & K. M. Kim. (2017).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living in a multicultural family in South Korea: Gender difference. *Journal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1*(2), 119-129.
- [9] K. K. Kim & Y. J. Hwang. (2017).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9*(1), 87-117.
- [10] J. Thijs & M. Verkuyten. (2013). Multiculturalism in the classroom: Ethnic attitudes and classmates' belief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7*, 176-187.
- [11] S. A. Kim. (2013).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parental attachment, multicultural acceptance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Early Adolescence. *Adolescence Culture Forum, 36*(6), 59-89.
- [12] A. C. Fletcher, A. Rollings & P. Nickerson. (2004). The extension of school-based inter- and intraracial children's friendship: Influences on psychosocial well-being.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4*, 272-285.
- [13] S. Kvermo & S. Heyerdahl. (2003). Acculturation strategies and ethnic identity as predictors of behavior problems in arctic minority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1), 57-65.
- [14] J. Y. Choi & J. C. Kim. (2015). Explora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al that influence multicultural acceptance for elementar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2), 389-411.
- [15] S. J. Lee & J. Y. Chae. (2015). Differences in the multicultural perception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related variabl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6*(6), 23-38.
- [16] C. G. Ellison & D. A. Powers. (1994). The contact hypothesis and racial attitudes among Black Americans. *Social Science Quarterly, 75*, 385-400.
- [17] K. I. Choi. (2016). The difference of effect of peer relationship on multicultural acceptance for urban and rur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diative effect of school adjustment and perception of community. *GRI Review, 18*(2), 103-126.
- [18] M. A. Kim & I. O. Hwang. (2017). Effects of multicultural nurturing attitude of parents perceived by children on multicultural acceptance of the children.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24*, 33-56.
- [19] Y. M. Yang & J. S. Kim. (2015).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 esteem, sense of community, and multicultural receptivity. *Journal of Youth Welfare, 17*(4), 309-328.

- [20] G. N. Lee, Y. E. Kim & K. Y. Lee. (2013). The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prim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6(3), 1-14.
- [21] M. J. Kim & O. B. C. (201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cultural acceptance inventory for Korean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7(4), 69-88.
- [22] J. H. Kim & I. S. C. (2016).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programs based on ethnomathematics and critical mathematic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4(4), 151-169.
- [23] S. M. Cho, J. S. Chun, S. H. Nam, K. H. Kan & M. J. S. (2012).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program designed to promote multicultural acceptance. *Family and Culture*, 24(4), 103-134.
- [24] M. J. Kim & K. E. Kim. (2018). An analysis of multicultural research trends in Korea.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1(1), 1-27.
- [25] S. K. Cha & H. W. Byeon. (2018).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the influential factor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Korean teens.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9(3), 211-216.
- [26] K. Krippendorff. (1980).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27] U. Bronfenbrenner.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28] R. Crosnoe & M. K. Johnson. (2011). Research on adolesce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37, 439-460.
- [29] D. Hughes & D. Johnson (2001). Correlates in children's experiences of parent's racial socialization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4), 981-955.
- [30] J. Pattnaik. (2003). Multicultural literach starts at home: Supposing parental involvement in multicultural education. *Childhood Education: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80(1), 18-24.
- [31] S. Sinclair, E. Dunn & B. S. Lowery.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acial attitudes and children's implicit prejud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283-289.
- [32] M. Verkuyten & J. Thijs. (2002). Racist victimization among children in the Netherlands: the effect of ethnic group and school. *Ethnic and Racial Studies*, 25(2), 310-331.

이 현 정(Hyun-Jung Lee)

[정회원]



- 1999년 12월 : 美일리노이 주립대 사회사업학 (사회사업학석사)
- 2007년 12월 : 美일리노이 주립대 사회사업학 (사회사업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여성복지

- E-Mail : hjlee2003@bu.ac.kr